

# 넉 달 만에 열리는 中 하늘길… 항공사 숨통 트이니

아시아나, 인천~난징으로 물꼬  
대부분 국적사 中 운항 재개 준비  
베트남·홍콩 등 추가 확대 움직임

여전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맥을 끊고 있는 항공업계가 다시 한 번 '국제선 재개'에 대한 기대를 품게 됐다.

1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3월 말 이후 중국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막혔던 한중 간 하늘길을 재개하는 첫 항공사가 됐다.

당초 코로나19 감염의 해외 역유입을 막기 위해 중국 정부가 실시했던 '1사 1 노선' 규제로 인해 아시아나항공은 인천-창춘 노선만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국토교통부와 중국민항국이 한중 운항노선 확대에 합의함에 따라 이날부터 주 1회 인천-난징 노선도 운항하게 된 것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막혔던 항공편 운항 재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인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천-난징 노선 재개가 항공시장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같은 한중 간 하늘길 운항 확대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지난 5월부터 있었다. 당시 주요 기업 인력들의 파견을 돋는 '기업인 신속 통로 제도'로 운영하고 있던 만큼, 중국의 양회서 1사 1노선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에 높다고 본 것이다.

이에 일부 국적사들도 6월부터 중국 노선의 추가 운항 재개 계획을 밝히기도 했지만 결국 실제 운항에는 나서지 못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실제 운항을 시작한 아시아나항공을 필두로 대부분 국적사들이 운항 재개를 위한 실질적인 준비에 나선 만큼 점진적인 운항 확대가 전망된다.

에어부산은 현재 중국 지방정부로부터

터 방역확인증을 획득했으며, 오는 17일부터 주 1회 인천-선전 노선을 운항할 계획이다. 중국뿐 아니라 전 국제선이 운항 중단됐던 에어부산은 지난 3월 9일 이후 131일만에 국제선 재운항에 나서게 됐다. 향후 중국 항공당국의 지침에 따라 주 2회까지 증편도 검토 중이며, 내달 인천-닝보 노선의 재운항도 준비하고 있다.

대한항공도 다음달부터 중국뿐 아니라 중화권 지역의 운항을 재개할 방침이다. 1사 1노선의 규제로 선양 노선만을 주 1회 운영 중이던 대한항공은 8월 1일부터 광저우 노선을 주 2회, 홍콩 노선을 주 3회 운항한다. 또한 진에어도 오는 16일 첫 운항을 목표로 제주-시안 노선을 중국 측과 협의하고 있다.

아울러 대부분 국적선이 운항 중단돼 경영난을 겪고 있는 국적사들은 최근 중국과 함께 다른 지역의 국제선 재개에도 나서는 모습이다. 티웨이항공은 오는 22일부터 베트남 호찌민과 홍콩 등 2개 노선을 주 2회로 운항 재개한다. 이는 전 국제선 운항을 중단했던 지난

3월 이후 약 4개월만이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각국의 입국 제한 조치 등 노선별 상황을 지켜보며 국제선 운항 재개 노선을 추가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직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지 않은 만큼 언제든 하늘길이 다시 닫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중국 민항국은 지난달 초 국제선 항공편 승객이 3주 연속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으면 해당 노선의 운항 횟수를 주 2회로 늘릴 수 있게 했지만, 지방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해 증편이 이뤄지지 않은 바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운항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방역확인증이 제일 중요하다. 방역확인증이 있으면 그 이후 다음 수순들은 절차대로 가면 된다. 제일 중요한 것이 방역확인증이다. 방역확인증은 도시에서 받는 것"이라며 "변수라는 것은 당연히 아직 있다. 하지만 방역확인증을 이미 받은 노선의 경우, 운항 불가 등의 변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 택배 물량 증가… 한진, 영업익 30% 증가

매출 1조636억, 영업이익 527억  
물류사업도 코로나19 불구 선방  
"안정적인 대응체계 구축에 만전"

한진이 택배물량 급증 등에 힘입어 실적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진은 올 2·4분기 기준으로 누적 경영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연결 기준 매출액은 1조636억원, 영업이익은 527억원을 각각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매출액(9817억원)은 8.3%, 영업이익(403억원)은 30.8% 늘어난 수치다.

호실적은 비대면 소비 급증에 따른 택배물량 증가세 영향이 컸다.

이를 위해 한진은 안정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오는 2023년까지 택배 시장 점유율 20%를 달성하기 위



한진의 대전 메가 허브 물류센터 조감도.

해 2850억을 투자, 대전 메가 허브(Mega-Hub) 터미널 구축을 진행하는 동시에 전국 각 거점 지역에 택배터미널 신·증축과 자동화 설비 도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물류사업은 물류창고사업과 컨테이너터미널 하역사업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유지했

다. 앞으로도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과 공급망 관리(SCM) 역량 확보를 위해 신규 인프리를 기반으로 기존 전략화 주사와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컨테이너 터미널과 연계해 대형 우량 고객도 신규로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글로벌사업의 경우 글로벌 이커머스(E-Commerce) 시장 공략을 위해

항공, 포워딩, 국제 특송, 국내택배를 연계한 복합 물류센터인 인천공항 GDC(Global Distribution Center)가 8월 개장을 앞두고 있다.

GDC는 일원화된 물류서비스 기능을 수행하고 최신 자동화 설비를 도입해 화물분류, 통관 등 운영 효율성 향상과 최적화된 SCM 체계를 기본으로, 수출·입 물류뿐만 아니라 환적화물 등을 집중 유치할 계획이다.

한진 관계자는 "급변하는 산업환경에도 호조세를 이어가기 위해 핵심역량 강화와 경영효율화를 지속하고 있다"며 "올해 경영목표와 중장기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한진은 올해 경영목표로 '내실 경영과 체질강화를 통한 수익성 제고 및 미래 성장기반 구축'으로 정하고 매출액 2조 3300억원, 영업이익 1000억원 이상을 달성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 삼성, 20만 임직원에 '분산 휴가' 권고

'하계 휴가 운영 가이드' 마련  
국내 여행 장려… 코로나19 방지

삼성이 코로나19에도 안전하고 상생하는 여름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임직원들에 행동 지침을 마련했다.

삼성은 '하계 휴가 운영 가이드'를 마련하고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 20여개 계열사에 도입하고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가이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함께 내수 경기 활성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휴가 시기 분산 ▲국내 휴가 권장 ▲감염 예방 수칙 준수 등 3개를 중심으로 한다.

우선 삼성은 임직원들 휴가를 7~9월로 분산 운영키로 했다. 20만명에 달하

는 인파가 성수기로 집중되면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삼성은 2016년부터 사무직 직원에 대해서는 원할 때 휴가를 쓸 수 있는 '상시 휴가제'를 시행해 왔다. 삼성전자와 SDI 등 제조사업장을 운영하는 계열사에서만 제조직군에 한해 정해진 기간에 단체 휴가를 쓰는 '집중 휴가제'를 적용했었지만, 올해에는 모든 직군에 분산 휴가를 권장키로 했다.

여름 휴가 장소도 가급적 국내에서 보낼 것을 권장했다. 국내 소비 촉진을 통한 내수 경기 활성화 및 해외 방문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서다. 해외 거주 중인 가족 방문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내부 승인 절차를 거쳐 출국을 허용한다. 귀국 후에는 14일간 자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뉴스

가격리 등 방역 수칙을 준수토록 했다.

이 밖에 가이드는 ▲휴가 기간 중 마스크 상시 착용 ▲적정 거리 유지하기 ▲고위험시설 방문 금지 ▲증상 발현 시 즉시 여행 중단 및 검사 시행 등 감염 예방 수칙을 휴가 기간에도 준수하도록 했다. 한편 삼성은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내수 경기 활성화에 적극 동참해왔다. ▲300억원 규모 구호성금 및 물품 기부 ▲생활치료센터 지원 및 의료진 파견 ▲마스크·진단키트·손소독제 생산기업 스마트공장 지원 ▲마스크 원자재 수입 ▲온누리 상품권 협력사 지급(300억원 규모) 등이다. /김재웅 기자 juk@

## 삼성전기

### MLCC 라인업 확대 ABS용 등 5종 개발

삼성전기가 전장시장 공략을 위해 자동차용 MLCC(적층세라믹콘덴서) 라인업을 확대한다.

삼성전기는 12일 파워트레인용 MLCC 3종과 자동차 제동장치(ABS)용 MLCC 2종을 최근 개발하고 글로벌 자동차 부품 거래처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LCC는 전자제품의 회로에 전류가 일정하고 안정적으로 흐르도록 제어하는 부품이다. 스마트폰, 자동차, IoT 관련 제품에 사용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에는 동력전달, 안전, 주행, 인포테인먼트 등에 최대 1만 개의 MLCC가 탑재된다. 삼성전기는 1988년부터 MLCC를 개발 및 생산하며 IT 부문에서 전 세계 2위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파워트레인용 MLCC는 자동차의 동력전달계 내부의 고온, 고압 환경에서 고용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술적 난이도가 높다. 삼성전기는 2012(2.0×1.2mm) 크기에 1.0uF(マイクロ페어), 3216 크기 2.2uF, 3225 크기 4.7uF 등 총 3종 개발에 성공했다.

삼성전기는 또한 ABS 용 MLCC도 2종 개발했다. 자동차의 제동장치는 안전과 직결된 부품으로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다. 삼성전기가 개발한 ABS 용 MLCC 2종은 기존 제품 대비 수명을 20%, 직류전압을 가했을 때 제품의 용량이 감소하는 DC-BIAS 특성을 5% 높였다. 그리고 전압에 의해 손상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최고의 전압인 내전압도 기존 제품 대비 1.5배 높였다.

/박태홍 기자 pth7285@